

“멕시코,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격론”

**동성결혼 반대 집회
 수만 명 참석
 동성에 지지자들도
 집회 열고 가두행진**

멕시코에서 전국적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엘 오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은 “수 백명의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날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집회를 열고 메트로폴리탄 대성당까지 행진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우리도 가족’이라는 문구가 쓰인 플랜카드와 ‘나는 당신의 가족을 존중하니까 내 가족도 존중해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전날에는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결혼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흰옷 위에 ‘아버지+어머니=행복한 가족’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분홍, 파란, 흰색 풍선을 들고 평화 행진을 벌였다.

5천여 명이 동성에 반대 집회를 연 베라크루스에서는 일부 동성결혼 반대 시위자들이 동성에

자 옹호 단체 회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베라크루스 시위는 다양한 종교 단체와 시민 단체로 구성된 ‘가족을 위한 국민전선’이 조직했다. 국민전선은 이번 시위 참석자가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멕시코 시티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알림

시카고 권사합창단 초청 기독일보 후원음악회

시카고 권사합창단은 2015년 3월 창단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합창단이다. 한국의 폴포츠라 불리는 최성봉 자선음악회 특별출연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

- *일시: 9월 16일(금) 오후 8시
- *장소: 선한침지기교회
- *주소: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 *일시: 9월 17일(토) 오전 9시
- *장소: 은혜노인대학
-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일시: 9월 17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울타리선교회(후원)
- *주소: 4259 S. Western Ave. LA, CA 90062
- *일시: 9월 18일(주일) 12부 예배 특송
- *장소: 은혜한인교회
-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문의: 213-739-0403

제27회 하비스트컨퍼런스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서 1만 1천여 명 헌신 결단

**젊은이들
 화려한 쇼 아닌
 진정한 ‘제자도’에
 깊은 감명받아**



제27회 하비스트컨퍼런스가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지난달 29일 열렸다. ©하비스트교회 제공

지난달 말,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1만1천여 명이 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헌신의 결단을 했다.

지역 목사들은 이같은 영혼 수확의 비결이 실제로 교회를 사랑하는 새천년 세대들에게 있었다고 말한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달 29일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의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브래디 콜린스 목사와 제이슨 파웰 목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은 하비스트교회(담임 그렉 로리 목사)의 스텝 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하비스트 남부캘리포니아 십자군 아웃리치 선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늘날 새천년 세대들에 대

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가득한 가운데, 두 젊은 목사들(31세)은 이에 대한 사람들의 몇 가지 근거없는 믿음에 관해 쏟아내듯 말했다.

“먼저 하나의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젊은 새천년 세대들이 현장에 없고, 무관심하며, 진행 중인 사역과 단절돼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과 유리돼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두 목사는 함께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그렉 로리 목사의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활발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하비스트 크루세이드 사역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6일~28일까지 3일간 열린 27주년 아웃리치 연례 행사에 약 10만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1만1천명이 넘는 이들이 그렉 로리의 야간 설교를 통해 결심(決信)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콜린스 목사와 파웰 목사에게 다시 헌신의 결단을 한 사람들과 비교해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이들의 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 젊은이들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물었다.

콜린스 목사는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우리 일을 ‘씨 뿌리는 비유’에 빗대어 설명한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청소년 동성애 치료금지법 합법?”

CA 제9순회 항소법원 최근 판결서 인정

최근 제9순회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청소년 동성애 치료금지법을 합법적이라 인정했다. 이에 반대하는 PJI(태평양법률협회)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SB1172란 법안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청소년 동성애 치료금지법은 라이선스를 소지한 상담사가 청소년들의 동성애 성향, 성전환 욕구를 변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치료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 법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등 성 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한 모든 치료를 ‘비

전문적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 청소년을 부모가 상담사에게 데려오거나 청소년 자신이 치료를 원할 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동성애 청소년을 지지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합법이라 인정된다.

이 법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결혼가정치료사들은 PJI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제9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브래드 대쿠스 박사(PJI 대표)는 “매우 실망스러우며 종교 자유에 있어서 한 걸음 뒤로 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예수영생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Matthew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일어나서 함께가자!

RISE UP & COME TOGETHER
 - Song of Songs 2:10 -

2016 PCIGA/GMI MISSION CONFERENCE
국제총회 GMI 세계선교대회
9.19(월)~22(목), 2016
장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 개막식 및 선교사 간증의 시간: 9.19(월)~21(수), 오후 7:30(버전센터)
- 금요특별집회: 9.23(금) 오후 7:30 현지 선교사 간증, 선교보고
- 선교부스 및 먹거리 장터: 9.20(화)~22(목), 오후 5:30~7:30(야외정원)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음식과 현지 지역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의 시간)
- 주최: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Tel. 1. 714) 446-6200, 1000, 1004

“74개국에서 520명, GMI 선교대회”

9월 19일(월)~22일(목)…은혜한인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가 9월 19일~22일까지 정기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란 주제로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한다.

1989년 예장 보수합동 측의 미주연합노회로 시작돼 8년 전 분립한 국제총회는 현재 미주와 유럽, 한국 등지에 노회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70여 개 교회가 있다.

남가주에서는 은혜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미주비전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생수의강선교교회, 에브리데이교회 등이 교단에 속해 있다.

소속 교회 수는 다소 적은 편이지만 총회 산하에 있는 해외선교

부인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총재 김광신 목사)를 통해 무려 74개국에 307명의 선교사를 직접 파송했고 213명이 협력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총 520명의 선교사와 함께 13개 단체도 협력하고 있다.

GMI는 4년마다 선교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중남미권, 구소련권,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등의 선교사들이 참석하며 총회 측은 약 7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교대회 동안 풀러신학교 박기호 교수, 컴미션 이재환 선교사, SON미니스트리 김정환 선교사가 특강을 전하며 예배, 선교 보고 등

총회와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13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소개했다.

왼쪽부터 김대섭 목사(은혜한인교회 행정팀장), 한기홍 목사(증경 총회장, 은혜한인교회 담임), 이서 목사(총회장, 미주비전교회 담임), 김종욱 목사(상임총무, 홀리랜드성경연구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교대회 마지막날인 22일 목요일에 총회가 열린다. 국제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2년이며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가 없다.

증경총회장 한기홍牧사는 이번 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단의 발전을 위한 안건이 주요한 과제로 상정될 것이라 언급했다. 총회 후 목사안수식에서는 9명이 임직한다.

총회장 이서牧사는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받고 헌신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대회를 여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9일 LA 지역 한인 교계 지도자를 중심으로 북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LA 총영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북핵 폐기하라”

한인 교계 지도자들…LA총영사관 앞 서명 운동

북한이 9일 제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가주 지역 한인 교계 지도자들이 LA 총영사관 앞에서 북한 핵 폐기를 촉구하며 한인들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 남가주 지부는 현재까지 약 1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남가주에서 1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현재까지 이 운동에는 전세계에서 약 326만 7천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지도자들은 총영사관을 방문한 한인들에게 북한 핵 폐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9월 25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리게 될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소개했다.

김준형 기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모임”



이 모임에서 김희창 목사가 특강을 전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가 12일 오전 샌디에고 새민음교회(담임 안충기 목사)에서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에는 교단 산하 엘레이 지방회, 엘레이동지지방회, 남서부

지방회 등의 성결교회 소속 교역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1부 예배는 교역자회장인 안충기 목사의 사회로 남서부지방회장 권다윗 목사가 기도했고 양우광 목사(아리조나 SV한인연합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이어 김희창 목사(LA말씀새로운교회 담임)가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정진수 목사(샌디에고 로고스교회 원로)가 축도했다.

한편 김희창 목사는 예배 후 ‘북한문화사역을 위한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이민 목회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전했다.

[김희창 목사 제공]

영 김 의원 재선위해 함께 뛰는 한인들

가주첫 공화당 한인 여성 주하원의원이며 65지구의 첫 아시아 주하원의원이기도 한 영 김 의원의 11월 재선을 위해 지역 한인들이 함께 뛰고 있다. 이들은 모든 한인 시민권자들이 꼭 유권자 등록을 하고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는 714-752-3391나 웹사이트(<http://registertovote.ca.gov/ko/>) 참조.



영 김 의원과 한인 단체장들이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호소했다.



7일 한인가정상담소가 개최했던 세미나 모습.

“자녀들의 이성교제와 데이트 폭력”

한인가정상담소…데이트 폭력 세미나 개최

자녀들의 이성교제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와관련,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7일 데이트 폭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성교제 및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원인,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 폭력적인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배웠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데이트 폭력이란 것에 대해 잘 몰랐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이나 행동도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아이들과 이성교제나 데이트에 대해서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피했는데 아이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맡은 가정폭력지원·예방부서의 제니퍼 오 매니저는 “부모가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아이들의 이성교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도와줄 수 있다”며 “건강한 관계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 서로의 비운더리를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일 관련 세미나가 한차례 더 열렸으며 불루월드 재단이 후원했다.

*문의: 213-235-4848

[공 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 부회장인 김재울 목사에 대한 직무 정지와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영구 제명

금번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2016년 9월 9일 임시 임원회를 통하여 김재울 수석 부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제명하기로 결의 하였다.

(정관 제 2장 10조2항 위반)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2장 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 할 수 있다.

1. 폭언 (2016년 8월 4일 당시 총무였던 박세현 목사에 대해 폭언- 동영상 참조)
2. 폭력 (2016년 8월 11일 현 회장인 강신권 목사를 폭행)
3. 거짓말 유포 (2016년 9월 1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를 부정함)
4. 공금 횡령 (2016년 8월 30일 본회의 회계의 서명자가 아니어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교협의 구좌에서 공금을 불법 유출함으로 본회의 회원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본회의 재정에 손실을 입혔음)

(정관 제 2장8조 1,2항 위반)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정관 13조 2항 위반) 수석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며 회무와 행정에 참여하여 자기 회장의 승계를 준비한다. (회장에 대한 폭언, 폭행과 2016년 9월 3일 수석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제명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회장을 보좌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 수석 부회장의 직무를 불 이행하여 정관 제 8조 1, 2항, 정관 13조 2항을 위반하였음)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김재울 수석부회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고, 회원으로서 심각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였기에 김재울 수석부회장의 직무 정지와 회원으로서 제명결의를 천명합니다.

2016년 9월 9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46대 회장 강신권 목사

총무 김영구 목사 서기 한대명 목사

“위기 속 한인교회 위한 신학교육의 돌파구를 찾아라”

구체적인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현대 교회가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위기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도 대다수가 동감할 것이다. 미국의 한인 신학교육이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본지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mbts.edu)의 박성진 학장과 이 문제를 놓고 대담했다. -편집자 주

◆한국교회나 미주 한인교회 모두 교세 감소나 대사회적 신뢰도 하락 등을 체감하고 있다. 이 정도면 위기라 진단할 수 있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19.4%에 불과할 정도로 타 종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이 신뢰 수준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불교와 천주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개신교만 유일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교회도 퓨리서치 등의 자료를 보면 주요 교단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남침례회 역시 지난 8년간 성도 수가 감소했고 지난해에만 20만 명이 감소했다. 미주 한인교회의 성도 수 증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긴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한인교회 역시 성도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갈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성도 수 감소 때문에 한인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왜 성도들이 감소하는가에 대한 원인과 경향을 분석하는 일이다. 또 한인 소형교회들이 직면하게 될 재정적인 압박이나 2세 교육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는 한인교회가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위기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위기는 해결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인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목회자의 신학교육과 성도들의 신앙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신학교

는 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신학생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신학의 위기보다 신학교 자체의 위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미국 신학교의 학생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신학교의 학생 숫자가 감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2003년부터 학생 숫자는 감소하고 있었고 2008년의 경제 위기로 인해 감소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의 학생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주가 아니라 2000년 초부터 미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닥쳐온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0년 초부터 종교적으로는 만연해 가는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사회학적으로는 낙태나 동성애 등의 첨예한 문제로,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적 논의로, 기독교가 견지하는 절대적 가치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물론 정치나 언론도 이에 한몫을 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이들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이 들어왔고 원론에 그치는 답변으로 치부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다.

종교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거나 테러나 일으키는 극단 세력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신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반적인 추세를 한인 신학교는 아직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한인교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0년내에 한인들의 신학교 진학률도 떨어지리라 예상된

다. 한국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감소가 결국은 미주 한인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한인 신학교는 이에 대해 잘 준비해야 한다.

◆신학교가 봉착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첫째는 한인교회는 현재도 다양한 도전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도전에 노출될 것이다.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해 도전은 지속될 것이고, 성도들의 교회 출석 빈도와 새신자의 등록은 감소할 것이다. 또한, 한인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이 세대는 서로 간의 소통도 이전 세대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키우는 것은 1세대 위주의 교회에는 매우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국 신학교 내 한국어 과정이나 한인 신학교는 한인 목회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론의 확립과 문화적 적용'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는 대형교회의 모델을 답습하는 성장 위주의 교회론을 견지해 왔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교회성장론은 자본주의적 교회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신학교는 목회자들에게 바른 교회론을 가르쳐야 하고, 각자의 사역환경에 최적화된 교회 모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존재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한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 높은 신학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신학교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과목을 줄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신구약 각 권의 석의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복음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바로 가르쳐야 한다. 신학교육의 질을 포기하면 이단의 세력에 기회를 주게 되고 세상 문화에 준비된 성경적 답변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기

“박성진 학장은 미국 신학교들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신학교들이 위기 속의 교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할지 말했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박성진 학장.

독교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셋째, 지난 10년 동안 미 고등교육위원회(Higher Learning Commission)의 화두는 온라인 교육이었고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한인 신학교가 온라인으로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교육은 혁신적이다. 더구나 다양한 기술이 온라인 교육에 도입되면서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효과도 있기에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교육방법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온라인 교육의 취지가 살아난다.

◆미국 신학교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과정을 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최근에도 몇 개의 신학교가 한국어 과정을 새롭게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신학교가 한국어로 신학 과정을 개설해도 좋은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이라서 미국 신학교가 영어로만 신학 과정을 개설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모든 학문은 모국어로 공부할 때 가장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듯이 신학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주류 신학교가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데는 찬성한다.

하지만 왜 최근이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신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며 발생한 재정적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한국어 과정을 열고 있다면, 이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또 신학교 내부적으로도 한국어 과정의 교수들과 미국부 과정의 교수들이 신뢰와 소통의 관계를 갖고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 가도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어 신학 과정을 개설한 미국 신학교가 40여 군데가 넘는다. 하지만 상당수가 한국어 과정을 도중에 포기했을 정도로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주류 신학교들이 한국어 과정뿐 아니라 다민족이나 중화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은?

미국 주류 신학교들이 다민족이나 중화권으로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

우리 학교는 한국어 과정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과정, 루마니아 과정, 중국어 과정을 선교적 차원에서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신학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이에 바탕을 두는 성도들의 신앙 훈련에도 한계가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 과제이다. 한인교회도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면 이런 선교적 차원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준형 기자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연말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정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 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PRO-Z Gold
Glucose Control
Clinically proven to stimulate glucose metabolism
60 capsules
Made in U.S.A.



스미스 주립교도소 재소자 전도 및 위로집회 모습.

“재소자 1천 6백명에게 전해진 사랑”

재소자들의 영혼 구원 위해...GMA 주최 주립교도소 전도 및 위로집회 열려

Global Mission Alliance(이사장 김성택 목사, 이하 GMA)가 주최하고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심우진 목사)와 아틀란타중앙교회(담임 한병철 목사) 그리고 복음주의연합이 함께 준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제6회 스미스 주립교도소 재소자 전도 및 위로집회”가 지난 달 26일 조지아 남부 그랜빌 소재 스미스 주립교도소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재소자들로 구성된 찬양팀 “Smith State Prison 앙상블”의 연주 속에 45명의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300명의 모범수들에게 제공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후 김철식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전도집회는 특별히 초청된 ‘아틀란타한국문화원(원장 양현숙)’의 난타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GMA는 오랫동안 김철식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 온 Chaplain Dr. Bernard Hill, Warden Douglas Williams, Wayne Dasher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지아 주 교정국에서는 아틀란타중앙교회 한병철 목사, 이사장 김성택 목사 그리고 사무총장 이규중 선교사에게 감사패를, 김철식 선교사에게는 2016년도 자원봉사자 상을 각각 수여했다.

오전 집회를 인도한 김성택 목사는 “인생은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죄는 그 관계를 파괴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다.

점심식사는 전날 저녁부터 한

인 재소자를 포함 25명의 재소자들이 밤새도록 준비한 2,500 파운드의 닭고기 바비큐와 자원 봉사자들이 교도소 주방에서 만든 야채볶음, 쌀밥, 옥수수, 과일과 스낵 등이 300명의 모범수와 1,600명의 모든 재소자 그리고 교도소 직원 등 2,200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식사는 주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모든 재소자들에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의 점심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전달돼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다가갔다.

한편 스미스 교도소 사역은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故 정인수 목사의 깊은 관심 속에서 매년 진행되었던 사역이며 급변에도 정 목사가 동참하기로 하였던 사역이기도 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아틀란타 앤더슨 김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1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건강의 그림을 그리는 의사 질병을 정복하는 환자

여호수아 18장의 교훈

필자가 유테인과 백인 환자를 주로 진료하다가 LA한인타운으로 이사하여 새로 개원한 지 몇 개월 지났을 때의 일이다.

과거 백인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금 환자의 질병이 어려워하니 어려워한 약 처방을 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진료실을 나갔다.

그런데 LA한인타운으로 옮겨 개원한 후 맞이하게 된 많은 한국인 환자들은 이 같은 설명을 하면 “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데요”, “약 먹으면 속이 쓰려서”, “지금 별 증상이 없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 등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이런 환자들을 대할 때면, 필자는 다시 왜 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환자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결국 환자 자신들의 생각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LA한인타운으로 옮겨 새롭게 개원한 것이 옳은 결정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 힘겨운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을 맞아 같은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 갔을 때, 그날 주일예배 설교 본문이 여호수아 18장이었다.

유다와 요셉 지파 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땅의 그림을 그려 오게 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셨다는 말씀이셨다.

설교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

님께서 아무리 그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직접 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땅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였다.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에서는 이 점을 인정하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의외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고등학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하버드대학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무책임하다고 말할 것이다.

필자는 질병이 발병하면 의사의 말은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본다. 심지어 뇌출혈이 있는데 수술은 마다하고 오로지 기도로 낫겠다고 하는 환자도 봤다. 그 옛날 그 일곱지파가 끝까지 그 땅으로 가지 않고 기도만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육체를 주셨다 할지라도, 환자 자신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의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의 그림을 그려서 환자들에게 알려 주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과하다. 그리고 그 그림 상의 방법을 통해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환자의 책임이며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인 중고등학생들 클래식 앙상블로 9.11 15주기 추모

7명의 중고등학생으로 이뤄진 클래식 앙상블 팀들이 9.11 15주기를 추모하며 이노비 베네피트 콘서트를 개최했다.

9월 11일 오후, 뉴저지 잉글우드클리프에 위치한 NV팩토리(대표:유성환)에서 7명의 중고등학생들로 이뤄진 클래식 앙상블 팀이 9.11 15주기를 추모하며 이노비 베네피트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에코스트링스와 트리오 오푸스 49 두 팀으로 참가했으며, 이외에도 최초로 클래식 기타로 맨하탄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예은이 게스트 연주자로 특별 출연했다.

이날 트리오 오푸스 49의 크리

스티나 정 학생은 “이번 공연이 9.11에 진행되는 만큼 사랑과 행복, 그리고 평화의 뜻을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트리오 오푸스 49는 헬레나 황(바이올린), 크리스티나 정(첼로), 애슐리 김(피아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2년부터 함께 오케스트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맨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D단조 49번과 엘가의 사랑의 이사를 연주했다. 특히 맨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49는 학생들답지 않은 훌륭한 연주를 선보였다.

에코스트링스는 르네 초이, 함지훈, 샬리 한, 트레버 켄슨으로 이루어진 바이올린 앙상블이며 2009년부터 함께 활동하면서 유럽 등지에서 솔로리스트와 챔버뮤지션으로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안토니오 비발디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토 10번 B단조 3번 등을 연주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장애인과 병원 환자를 찾아가는 무료 공연 프로그램에 기부된다.

[뉴욕 기독교일보]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00개 \$320 2017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다양한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커스텀 달력도 제작해 드립니다.

심방 및 선물용 액자 (병원, 개업, 가정 심방용 말씀액자) \$30

말씀이 기록된 심방용, 선물용 캔버스 16x16: \$30 커스텀제작도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18x24, 20x30등 다양함)

각종사인 전문 실내외 차량용사인 \$15 \$160

저희 탑미디어는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배너 36x120 \$50 환영배너 (스탠드 포함 \$65)

각종 임직패, 감사패 \$50 각종 전도 용품

전도용 시디 / 앨범 제작 장단 배경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시디봉투1000장 +풀칼라인쇄시디1000장 \$300!!!

다양한 미디어용품: 전도용시디, 앨범, 각종머그컵/보온물병, 수건, 전도용시디, 책갈피, VBS 및 각종 행사 선물용 티셔츠, 풀칼라티셔츠인쇄 \$6.5, 주보/현금봉투 및 각종 인쇄물, 주보1000장+현금봉투1000장 \$300!!! (디자인 무료!!!), 교회로고이름+주소+전화번호 차량용스티커 2개 \$50!!!

주님미디어닷컴
junimmedia.com

TOPMEDIAUSA.COM E-mail: topmedia153@gmail.com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린도후서 2:12-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

사도바울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로마제국이 폴리갑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결국엔 폴리갑을 잡아가기 위해 군대가 출발하자 폴리갑은 기도하며 숨어있던 처지였습니다. 로마군은 폴리갑의 집으로 가서 그 두 아들을 잡아 고문하며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고 답변을 듣지 못하자 두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폴리갑이 전해 듣고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하나님께 자신이 향기로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즐거이 단두대에 오를 수 있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폴리갑이 하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베개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그 불길에 자신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후 하나님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하고 로마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을 구하여 돌려보내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와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예수 패거리리를 만들었다는 죄장으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함께 동행하던 친구가 "이 사람아, 아무리 예수가 좋고 복음이 소중하다해도 사람 목숨보다 귀한게 어디 있겠나. 내가 자네가 너무 안타까워 이곳에 왔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나 이제 예수 같은 것 안 믿겠다고 한 마디만 하게 그러면 내가 왕에게 진언하여 너를 특사로 사면하게 하고 너를 고관대작으로 직위도 줄 수 있도록 해주겠네"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빙그레 웃으면서 친구에게 "이 사람아, 나는 그럴 수가 없네. 나 같은 것을 구속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내 부탁을 거절하시거나 나를 무시하신 일이 없었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네"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는 화염에 목이 막혀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때까지 감사의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군중들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깨달아진 많은 사람들이 그 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폴리갑이 살아서 믿게 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음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연

함과 담대함,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

전에 의정부에서 집회할 때 어느 교회에 최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이 돈을 벌러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또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밥상을 뒤집어 엎고 아내를 쥐잡듯 두들겨 팼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는 '내가 자기를 지옥 안가게 하려고 이토록 모든 것을 참아가며 자기를 위해 성질도 죽이고 비위도 맞추며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남편을 향해 안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걸리든가 비참하게 되어 죽을 거야. 두고보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의 행패가 더욱 심해져서 별이한 돈도 가져다주지 않고 도박도 하면서 그 가정은 더욱더 생지옥이 되어갔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대로, 좋게 대하면 좋게 대해주고 심하게 대하면 심하게 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흥회 시간에 첫 날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매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함으로 자기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자신이 하나님을 헛믿고 살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짜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자신은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모든 것이 자기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최 집사가 하루는 부흥회가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까지 도박을 하고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고 1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들어오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칼을 손에 들고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예배까지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칼을 쥐고 잠이든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을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더욱 불들어 기도하게 하셨다고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이 그동안 원수 같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토록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들고 있던 칼을 치우고 남편의 손을 모아 잡고 머리를 감싸 안고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흘리는 눈물에 잠이 깬 남편이

그간 남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편에게 잘못해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편이 지옥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남편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태도에 남편도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날의 일들을 서로 자신의 탓이라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 가정이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풍기게 된 것입니다.

3. 환란을 당할 때의 그리스도인

6.25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민군들이 들어 닥쳤습니다. 종탑위의 십자가를 부수고 강단위의 십자가도 떼어내고 성경책, 찬송가를 짓밟고 사람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새끼줄로 모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부터 불러 세워놓고 총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는 거 그만두지 그래.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놔둬 줄 거야"합니다. 그 목사님은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을 다른 곳에 묶어놓고 다음으로 장로를 불러내어 똑같이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장로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또 강단 위에 걸려 있던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고 침을 뱉으면 살려준다는 말에 목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엔 청년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예수를 믿겠는지를 또 묻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았고, 지금 당신들 손에 죽는 다

해도 나와 예수님 관계는 절대로 떼어 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순교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함께하던 또 다른 청년 한 명도 담대하게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인민군들이 이 둘은 당장에 죽어야한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인민군 한 명이 "대장님, 이 두 놈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아래 골짜기로 데려가서 무덤을 파게해서 그곳에서 두 놈을 썩죽이고 오겠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청년은 죽을 자리로 끌려갑니다. 산등성이를 지나 계곡에 다다르자 그 인민군이 "나도 장로님 아들인데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당신들 여기서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이길로 내려가면 임진강이 나오는데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남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서든 다시 만날 것이다"고 말하고는 허공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인민군들의 보급품을 나르다가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청년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 청년들을 살려준 그 인민군도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훗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어진 하나님의 생명이시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생명의 사활이 걸려있는 일임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Need color ?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Office &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364e / C284e / C224e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Mobile Support	USB Print	Emboss Drivers!
-------------------------------------	-------------------------------------	-------------------------------------	--	--	-------------------	--------------	--------------------




“유년주일학교 사역자를 모십니다”

본 교회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입니다
“유년주일학교” 사역을 사랑과 헌신으로 담당할 Part Time 사역자를 모십니다.

유년주일학교

1. 자격요건

- A. 신학교재학중 또는 졸업하신 분
- B.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 A. 이력서 (사진포함)
- B. 본인 신앙고백서

3. 접수안내

- A. 보낼 곳 :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 B. 마감일 : 2016년 10월 30일
- C. 문의사항 : 정석표 장로 T(443)243~0061

갈보리장로교회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담임목사 조 병래)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LA 한인타운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위치 : 6가와 샷토 코너(새언약학교)
시설 : 본당 380+석, 파킹 46대, 교실 및 식당
연락처 : T(213)487-5437
담당자 : Mr. Joseph 구
이메일 : info@e-nca.org

• 교육칼럼(9)

청소년의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4)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찾고 있기에 많은 혼란을 겪는다.

이런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개리 챔번 박사는 청소년에게 다섯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words of affirmation(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의 표현), physical touch(신체적 접촉), quality time(양질의 시간), acts of service(희생하는 행동 및 모습), 그리고 gifts(선물).

이번에는 양질의 시간(quality time)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시간(time)은 삶(life) 자체이다. 십대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한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다룬 칭찬이나 신체적 접촉은 일시적이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시간’은 단어 그 자체처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 자녀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가정엔 꼭 사랑에 굶주린 자녀가 있다.

특히, 사업이나 사역에 모든 것을 걸고 뛰는 부모는 심리학자 로스 캠펠(Ross Campbell)의 다음과 같은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십대시절에 자녀가 많은 anxiety(걱정/근심)를 느끼고, 부모에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많다”

그럼 십대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같은 공간에, 또는 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아빠와 아들이 함께 농구게임에 보고 있다 하더라도, 아빠가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아이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요즘같이 다 각자 자신의 핸드폰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면,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다해도 별 의미가 없다. 같이 있을 때,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터치’등을 통해 아이에게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리해 보자.

첫째, 좋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대화란 일방적이어서 안된다. 부모만 말한다면 이것은 강의나 잔소리가 된다. 부모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듯이, 부모는 십대자녀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부분에 약하다. 그 이유는, 부모는 항상 가르치고 지시해왔기에 그렇다.

고,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아이의 말을 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선 안된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가로막거나 끊지말라. 즉, 부모가 더 듣고 덜 말해야 한다.

넷째, 대화 중 필요하다면 아이의 생각을 정리하는 질문을 하라.

예를들어, “네 말은 이러 이러한 것이 틀렸다는 뜻이지?” 또는 “지금 너는 엄마가 준비한 식단이 싫다는 말이니,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이니?” 같은 질문은 아이로 하여금 부모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부모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게 유도한다.

부모는 부모의 생각이나 반응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보다 “내 자녀의 말을 다 들어 줄 것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라”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섯째, 아이의 말을 이해하고 동감하도록 노력하라. 자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과 관계를 보는 것이다. 그럴려면 부모는 부모 자신이 자녀의 나이였을 때를 자주 상상해보아야 한다. 동감은 아이의 입장을 100%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물론 친구들과 몰에가서 쇼핑하는 게 재미있겠지” 또는 “운전을 못하게 되면 무척 불편하겠지. 이해한다”라고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는 뜻은 아니다.

여섯째, 아이가 말을 끝낸 후, 부모가 부모의 의견을 표현한다. 특히, 아이에게 “이제 아빠가 아빠의 생각을 말해보도 될까”라고 정중히, 진지하게 물어보도록 한다. 처음엔 매우 어색하고, “정말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대해줘야하니”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부모가 정중히 대화하면 아이는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아이는 부모와 계속 대화 하겠고, 또 어떤 아이는 부모의 입장을 무시하고 들으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즉, 아이의 입장이 부모에게 전달된 후 아이가 부모의 생각이나 입장을 무시한다면) 결국 대화를 끊은 이가 자녀에게 부모의 최종 결정에 항의할 수 없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십대자녀를 잘 이해하고 사랑해 주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십대자녀도 점차 성숙해질 것이기에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시간과 대화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한다.

세계 최고 스티트맨의 죽음

세계 최고의 점프 스티트맨이 생명을 잃은 이유가 어처구니없다. 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낙하산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실화다.

그의 경력과 노련함을 그를 살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 천 번을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도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낙하산을 가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에는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모두 ‘우리가 ~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어떤 현상과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목사, 선교사 가문입니다”



정기정 목사
 샘물교회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 영접한 행위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 제가 분명히 영접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제가 눈물 흘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고백하는 행위때문이라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다. 고백을 수 백 번, 수 천 번 했어도 예수님이 심령에 없다면 낙하산 없는 노련한 스티트맨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모신 삶은 예수님의 향기와 성품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령의 내적 확신의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는 외적 증거가 합쳐져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영혼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용납하심을 받은 이유도, 평생을 악하게 산 감도가 낙원을 약속받은 이유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만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에 주님만 우리의 모든 찬송과 자랑이 되신다.



조용기 원로목사 초청성회

날짜: 2016년 10월 10일(월)

장소: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el. 323-913-4499

1958년 전쟁 직후의 황폐함 속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5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사역하여 세계 역사상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이루었고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구를 약 115바퀴 돌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40년 전 설립한 베데스다 대학의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이곳을 방문하시므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남을 귀중한 성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에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베데스다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행사세부일정

1부 - 개교 40주년 축하 및 후원의 밤
5:00PM - 6:30PM

(초대받으신 분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분은 베데스다대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2부 - 축복부흥성회(설교: 조용기 목사)
7:30PM - 9:00PM

(다민족 성회로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며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가능합니다.)

주최 : 베데스다대학교
Bethesda University

시카고 권사 합창단 초청

CHICAGO KWON-SA CHOIR

제1회 기독일보 후원음악회



Welcoming Remarks



초청의 글 오병익 이사장

기독일보가 문서선교 후원을 위해 시카고 권사 합창단 초청 제1회 후원음악회를 열고자 합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연합의 정신으로 활약하고 있는 권사 합창단을 초청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수준 높은 연주회를 통해 남가주 지역 한인 교계에도 연합과 화해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부디 본 후원음악회에 참석하시어 문서 선교에도 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Conductor



지휘자 전성진 목사

성악가이자 지휘자로 알려진 전성진牧사는 한국교회 음악의 거장인故 김두완 박사로부터 교회음악, 작곡, 지휘를 공부했으며 배정행 목사, 김도연 선생에게 성악을 배웠다. 미국 시카고로 건너와 셔우드음악대학에서 성악, 루즈벨트대학에서 오페라를 공부하고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아메리칸 컨서바토리 음악대학에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에서 부학장을 역임했다. 합창에 관심이 많아 부산시립합창단원, 미국 바하 합창 소사이어티 멤버, 시카고 릴릭 오페라 합창단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2회에 걸친 독창회 중 성가 독창회가 7회나 될 정도로 교회 음악에 많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흑인교회에서는 유일한 아시아인 메시아 독창자로 21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Accompan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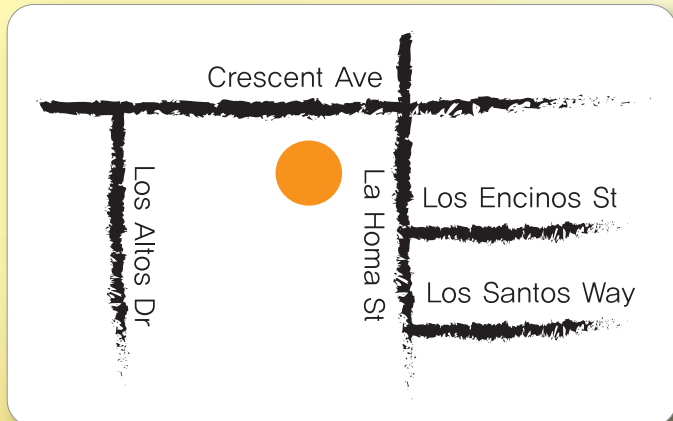
반주자 이혜인

숙명여자대학교(피아노과) 졸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원(반주 전공) 졸업
오페라 마술 피리, 피가로의 결혼 반주
숙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신춘 음악회 출연
Young Artist Concert 출연

CHICAGO KWON-SA CHOIR

후원음악회 일정

- 일시 : 9월 18일 오후 4:00
- 장소 : 남가주벤엘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 전화 : T(714)886-2562



후원 : 남가주벤엘교회, CHTV 1888, 미주복음방송



한목협 열린대화마당이 진행되고 있다.

“회개 없는 세례식”

‘개혁’ 주제 한목협 열린대화마당서...이세령 목사 지적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가 6일 오후 서울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 베들레헴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 34차 열린대화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경원 대표회장의 개회사에 이은 이세령 목사(한목협 공동총무, 복음자리교회, 미래교회포럼 사무총장)와 박성흠 부장(CBS 종교개혁500주년기획단 부장)의 주제발제, 이만규(예장통합 종교개혁5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한영복(기독교한국루터회 부총회장) 목사 등이 참여한 논란 및 열린대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을 제목으로 주제발제한 이세령 목사는 “참된 회개도 없이 기복 신앙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 왔다”며 “회개의 참된 증거, 거듭남의 증거도 없이 세례를 베풀어서 성화의 동력과 동기도 없는 성도를 양산해 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버리고 따르도록’ 하셨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례 과정에서 자신의 죄와 세속적인 세계관을 끊어버리는 참된 회개가 없다”며 “따라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버림이 있는 삶을 사는 지, 주변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를 받은 성도는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만을 하기 십상”이라며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삶보다는 성공과 성장을 지향하게 한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목사를 참된 복음의 선포자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자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목사는 “성도 대부분이 이명증도 없이 마치 쇼피카트 교회를 옮긴다. 공교회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무질서한 수평이동은 교회 성장에 좋은 발판이 됐지만, 최근 이단 대처에 치명적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가만히 들어온 여우가 포도밭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명증 하나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가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주일 밤 예배가 사라지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숫자가 낮 참석자의 20~30%에 그치는 현실은 가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함을 말해준다”며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구들이 각자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는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선 세대가 가졌던 가정예배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못자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맨 오른쪽)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특별사면을 선포하고 있다.

“예장통합, 김기동·故박윤식 목사 등 특별사면”

권징 16명·언론 1곳도 포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이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변승우·이명범 목사를 특별사면했다.

예장통합은 12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영남 총회장이 직접 방망이를 두드리며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채 총회장은 특별사면 선언문에서 이들이 “회개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총회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맞이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선포에 앞서 낭독한 ‘총회장 담화문’을 통해서는 “그 동안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왔다”며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닌,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자.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한국교회의 지체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자”며 “그래서 총회 2세기를 부흥과

성장, 감동과 감격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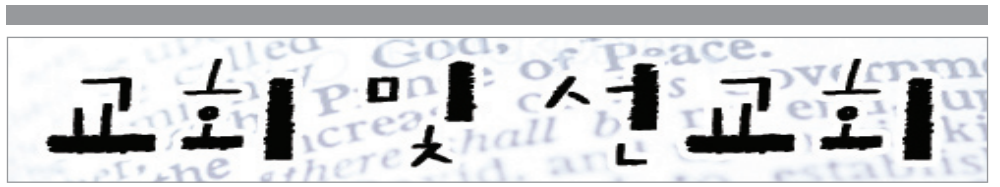
이날 함께 자리한 총회 한 임원은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복음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차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며 “따라서 신학적 독선과 오만은 금물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이밖에 통합측은 권징책임자 16명과 언론사인 교회연합신문을 특별사면했고, 기장 설립자인 故 김재준 박사에 대해선, 그를 파면하기로 한 제38회 총회 결의를 철회하도록 제101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사면 대상을 심사했던 특별사면위원회 위원장 이정환 목사는 스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 문제로 이단 정죄된 자 비본질적 문제라 할지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 개선할 의지를 가진 자 △사면 후 총회가 실시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이 이번 사면 대상 선정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100회 총회는 특별사면 위원회를 총회특별위원회로 구성, 1912년 9월 1일 총회 창립일부터 제100회 총회 폐회 때까지 책벌 받은 자들 중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제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김진영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점심예배 오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외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시대를 막으며, 이단기증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정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용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 365-8880 / F.(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8: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공부 토 오전 9:30-12:30
한아침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천사천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안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흥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침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신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389-0691 / F.(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인 무일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말-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생명과 부흥이 흥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말-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소, 소신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뒷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열매가 살아있는 교회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출성경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3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장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EM)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행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이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기도회 오전 5:30 (월-금)
금요예배 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블리즐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성경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8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에베레츠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수요(영성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89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뉴욕 주 대법원 © Albany NY/ wikimedia.org/ CC

“직접 출산이나 입양 안 했어도 부모 권리 인정”

뉴욕 주 대법원 레즈비언 커플 친권 문제 판결

뉴욕 주 대법원이 생물학적 관계가 없으며 입양한 관계도 아닌 사람에게 부모의 권리, 즉 친권을 부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두 레즈비언 커플들의 소송을 다루었다.

이 레즈비언 커플들은 뉴욕 주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던 시기에 동거하며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임신하기로 했고 자녀를 출산한 후 공동으로 양육했다. 그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당시 법에 따라 자녀를 직접 출산한 여성만이 100% 친권을 갖게 됐고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는 어떤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다. 한 소송에서는 친권이 없는 여성이 친권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소송에서는 친권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했다.

이 두 소송에서 대법원은 친권이 없던 여성들에게 친권을 부여했다. 임신

을 공동으로 결정했으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욕 주에서는 친권을 가지려면 실제로 자녀를 직접 출산했거나 입양을 해야 했다. 대법원은 “과거의 (친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증가하는 가족 구조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 당시 동성결혼이 불법이었고 당연히 부모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부부가 아닐지라도 임신 계획과 양육을 공동으로 했다면 친권이 발생한다는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동성 커플, 그 중에서도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하는 레즈비언 커플들의 자녀 양육권에 대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소송 사례는 뉴욕 주뿐 아니라 이미 메릴랜드, 콜로라도, 텍사스 주 등에서도 발생한 바 있으며 모든 법정에서 뉴욕 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김준형 기자

“UMC, 동성애 수용 검토 위원회 설립 연기”

美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애에 관한 교단의 입장 변화들을 분석·검토한 후 제시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을 연기하고 있다.

미국연합감리교회 대표들은 올해 초 열린 총회에서, 동성애와 (남성간) 동성결혼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재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실행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많은 수의 위원회 후보자들이 진행 절차의 연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위원회의 임원 후보자들의 수가 늘면서 임원들의 임명이 연기됐다. 모든 후보들을 충분히 고려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 회의에 이어 실행위원회는 전·현직 감독들에게 8월 15일까지 최대 5명의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당시 이들은 위원회의 임원 구성이 8월 31일 내로 완료되고 10월 중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 임원선출을 위해 300명 이상의 후보자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UMC의 권징조례에 따르면,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강혜진 기자

“진정한 제자도에 감명 받아”

美하비스트교회 스텝 목사들...컨퍼런스에서 밝혀

[면으로부터 계속] 그는 “이 행사 참여자들의 80%는 친구의 인도로 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한 전도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도 방식으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초대하고 데려온다”고 했다.

또 “그들에게 불신자 친구들을 데려오도록 도전을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관계를 (신앙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이런 행사를 복음제시를 위한, 중요한 머릿돌과 같은 하나의 소중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콜린스 목사에게 “오늘날 성령께서 젊은이들 사이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고무적인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콜린스牧사는 “새천년 세대들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목격했다”면서 “그들은 화려한 불빛 쇼나 연극에 감명을 받는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에 감명을 받는다. 내가 목격하는 젊은이들은 말씀에 진지하게 심취하며 자신들의 신앙에 진지하다’고 말했다.

이런 ‘제자도’는 하비스트교회 크루세이드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이 아웃리치 전도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후속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며, 새신자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250여 개 교회들이 협력한다.

파벨 목사는 “당신이 이곳 교회에서

헌신의 결단을 하지 않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지역에서 헌신하기를 좋아했다면 한다”고 말했다. 두 목사의 팀들은 새로운 등록 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그들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결하는 일을 한다.

“당신은 여기서 그 틈들을 통해 침투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다면, 당신의 믿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닌 진정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많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파벨 목사는 인터뷰 마지막에 “만약 당신이 젊은이들을 지배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자신들을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두신 것’임을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만일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이들이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히틀러가 불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러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만큼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영크리스천투데이

“美 십대들, 4명 중 1명 성경 읽다”

美성서공회 조사...십대 25%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 읽어

“美성서공회가 2016년 성경에 대한 미국 십대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25%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를 실시한 바나 리서치에 따르면, 또 86%는 성경을 종교적으로 신성한 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십대는 69%,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읽는 십대는 42%였다. 53%의 십대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美성서공회 아서 사터화이트는 “미국 십대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고 반신론에 빠져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사결과, 상당수의 미국 십대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의 십대들은 지난 1년 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줄어 들었다고 답했다. 그 주된 이유에 대해 41%는 “해야 할 일들로 인해 너무 바빠서”라고 했다.

반면 18%는 “최근 1년 간 성경 읽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성경읽기가 신앙의 여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터화이트는 “성경이 노력, 시험, 승리와 같은 인간의 모든 인생 경험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십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성서공회는 “십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고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63%의 십대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는 “부모님이 성경을 자주 혹은 가끔 읽는 모습을 본다”고 답했다.

더불어 54%는 “가정에서 성경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32%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50개 주에서 13~17세의 십대들 1,013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지난 5월 6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강혜진 기자

“덴마크, 3개월 간 1만 명 교회 떠나”

무신론 캠페인 영향...앞서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

최근 덴마크 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덴마크 교회(Church of Denmark) 수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이 기간 1만 명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으며, 이는 1월부터 3월까지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신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다.

덴마크무신론자협회를 이끌고 있는 앤더스 스트제른훅은 덴마크 일간지 폴리텍과의 인터뷰에서 “덴마크인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기쁘다. 많은 덴마크인들은 현신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신앙을 하는데 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예수님과 무함마드가 하나님

과 대화했는가?’라는 질문을 담긴 배너를 걸었다.

정부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국교인 덴마크 교회는 최근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신앙적인 표현들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모든 덴마크 시민들은 세례와 동시에 교인이 되지만 이후 다른 종교를 갖게 되거나 어떤 신앙도 갖지 않게 되면,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덴마크 교계 지도자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달 노르웨이도 국교인 루터교회에서 간단한 회원탈퇴 절차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띄웠을 때,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4일 동안 약 15,053명의 교인들이 탈퇴를 선택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강혜진 기자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생각 안해”

무슬림 출신 기독교 변증가 나발 쿠레시 밝혀



나발 쿠레시 ©크리스천포스트

마호메트는 진실로 무슬림 선지자인가?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에 대해서 “양 종교를 주의 깊게 연구한 결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제적인 연설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발 쿠레시는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의 대학 시절 학교 친구 중 하나인 데이빗 우드로부터 신앙에 대하여 도전을 받았을 때, 비로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쿠레시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친구는 대부분의 크리스천과 같이 죽은 것처럼 살지 않고, 기독교를 실제로 변호하면서

이슬람의 문제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일단 시도를 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레시는 친구 우드로를 통해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대한 수 많은 증거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3년 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슬람 신앙에 대해서 공부했다.

두 종교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 그는 ‘기독교는 확실한 증거들로 튼튼한 반면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사실, 그는 무슬림 선지자 마호메트에 대한 주장이 역사적인 사실과 모순된다고 여기고 있다.

그는 “마호메트의 가르침과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와 같은 특성을 체계화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기초”라고 설명한다.

강혜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글) 토 9:30AM-10:00PM
대형선교회 주일 2: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집아카데미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집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육 7:30 김명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a)
T.(562)691-0691/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lfb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배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사배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예프다스콜 College 오후 1:00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생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년부 오후 1:3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0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령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ly,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앤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크루즈 (Cruise)

바다위의 리조트,
전세계 메이저 크루즈라인들과
푸른투어 홀세일 계약기념 !!!



초호화 NORWEGIAN CRUISE EPIC호

[럭셔리] 동유럽핵심과 지중해크루즈

10일 \$2,999 ▶ 10/22

- ▶ 프라하 2박 / 로마 1박 / 초호화 크루즈 4박 / 바로셀로나 1박 (미서부 출발기준)
- 천년의고도 체코 프라하, 세계문화유산의 중심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의 피렌체, 세계적인 영화제의 간느, 그레이스켈리의 모나코, 아름다운 렌치리비에라 남프랑스 프랑스의 낭만 마르세유, 가우디의 바로셀로나

특급 프린세스

미주 최대의 직영점보유한 푸른투어만의 남미완전일주

페루/이과수/리오와 남미완전일주크루즈 23일 \$4,999

- ▶ 페루-칠레-아르헨티나-포클랜드제도-우루과이-브라질
- ▶ 2017년 1월 14일
- 1) 특급프린세스 남미일주(아말리아빙하)크루즈와 잉카의 전설 페루, 마추피추, 푸카푸카라
- 2) 세계최대의 폭포 이과수, 브라질의 상징 리오데자네이로!!
- 페루 : 리마/쿠스코/우르밤바/잉카 최고의 유적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피추
- 칠레 : 산티아고/발파라이소/푸에르토몬트/아말리아 빙하/남미 땅갈 마을, 폰타아레나스
- 아르헨티나 : 마젤란 해협/케이프 혼/우수아이아/푸에르토마들린/부에노스아이레스
- 포클랜드제도 : 스탠리 - 우루과이 : 몬테비데오 - 브라질 : 이과수 / 리오데자네이로

남미 <아말리아빙하>크루즈와 이과수/리오데자네이로 20일 \$4,299

▶ 브라질/아르헨티나 악마의 목구멍 심층감상/브라질의 상징 리오데자네이로 ▶ 2017년 1월 17일

특급 프린세스와 함께하는 남미일주 크루즈 17일 \$2,999

▶ 발파라이소/푸에르토몬트/아말리아빙하/폰타아레나스/우수아이아/푸에르토마들린/부에노스아이레스 ▶ 2017년 1월 17일

PRINCESS CRUISE 특선

[특가] 바하 멕시코 크루즈 특별출발 5일 \$345 ▶ 11/27

- * PACIFIC COAST WINERY CRUISE 8일 ▶ 10/8 \$799 ▶ LOS ANGELES / SAN FRANCISCO / SANTA BARBARA / ENSENADA (RUBY PRINCESS)
- * MEXICO RIVIERA CRUISE 8일 ▶ 11/12, 12/10 \$699 ▶ LOS ANGELES / PUERTO VALLARTA / MAZATLAN / CABO SAN LUCAS (RUBY PRINCESS)

멕시코

- 바하멕시코 4일 ▶ 매주 목, 금
- 바하멕시코 5일 ▶ 매주 일, 월
- [카니발 크루즈] \$299 부터

캐러비안

- 바하마 캐러비안 크루즈
- 5일/8일 ▶ 수, 수출발 \$799
- 카리브해의 투명한 쪽빛 바다를 즐기세요~

전세계

- 전세계 크루즈 ▶ 수, 수출발
- ▶ 파나마운하 / 남미(남극)크루즈 / 쿠바크루즈 / 하와이
- ▶ 남태평양 / 갈라파고스 / 알래스카 / 지중해 / 북유럽
- ▶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피요르드 / 크리스마스

*크루즈 상품은 출발일마다 계약시점에 따라 요금 변동 있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하는 감동의 유럽여행
스페셜한 가격과 명품일정으로 초대합니다!!



유럽 (Europe)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중세 유럽으로의 시간여행'

크로아티아 완전일주 +

발칸핵심 슬로베니아 / 보스니아 10일

▶ 플리트비체, 두브로브니크, 스플리트, 라스토케, 블레드호수, 포스토야몽굴, 피란, 모스타르, 메주그리예

* 푸른투어만의 안전하고 알찬 발칸핵심투어!!

▶ 특별출발: 11월 5일 / 11월 25일 \$2,999

- 1) 중세유럽 건축물과 쪽빛 아드리아해의 찬란한 조화, '크로아티아'
- 2) 같은 유럽 다른느낌, '보스니아'
- 3) 동유럽의 숨은 보석, '슬로베니아'
- 4) 천상의 호수와 폭포, 플리트비체 호수

푸른투어 인증
안전 ★★★★★
편의 ★★★★★
식사 ★★★★★
테마 ★★★★★

정통 서유럽	12일	\$3,399
▶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		
정통 동유럽	10일	\$2,999
▶ 폴란드/헝가리/크로아티아/슬로바키아/체코/우크라이나		
동서유럽	20일	\$5,199
▶ 런던/파리/인타르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버넨나 등		
미니 서유럽	8일	\$2,899
▶ 런던/파리/인타르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버넨나 등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3,099
▶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입장료포함전 일정 특식제공-해물파스타/송이구이/송이리케		
스페인/포르투갈	11일	\$3,199
▶ 리스본/세비아/코르도바/플레도/바로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3,099
▶ 이스탄불/아피도키아/코아인탈리아/파묵칼레/에페소/데살로니카/그리도/이테네		
이탈리 일주	7일	\$2,799
▶ 밀라노/베니스/피렌체/로마/폼페이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구석구석, 가장 완벽한,
진정한 힐링과 특별한 혜택을 만나세요.

한국 (Korea)

Imagine your Korea
e-world
다문화여행 한국일주 10일
▶ 10/20 \$2,560 (항공포함)

- ▶ 부소산성 - 전주 한옥마을 - 두류산 케이블카 탑승체험 - 강천산 국립공원 관광 - 화개장터 관광
- 순천 갈대밭 - 금산 보리암 - 남해 독일마을 -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 - 외도 해금강 유람선
- 부산의 자갈치 시장 - 경주 불국사 - 대릉원 (천마총) 관광 및 첨성대 경유
- 영덕 해맞이 공원 - 삼척 환선굴 -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 강촌 레일바이크 체험 (4인승 탑승)

독심자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리무진+강남소재 호텔숙박

독심자HMS 멀티비타민
무료 증정

퍼펙트 플러스 검진 \$530 건강검진만 \$370
신체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간염, 흉부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갑상선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퍼펙트 골드 검진 \$600 건강검진만 \$440
플러스 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No 팀! No 옵션! No 쇼핑!

전국일주 7일 ▶ 토 \$2,199

서남부권 4일 ▶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 월금 \$1,499

평창 올림픽강원 3일 ▶ 수 \$1,549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

광야의 도시 아라드(Arad)와 주변지역



마크데쉬 라몬 계곡.



아라드 광야의 모습.



구약의 유적지 아라드 및 주변 지역도.

가데스바네아(Kadesh Barnea)에서 헤브론(Hebron)으로 열두 정탐꾼을 보낸 사건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올라온다.

광야를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면서 적다운 적을 만나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에서 강력한 남부 도시국가였던 아라드를 만나게 된다(민21:1~3).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를 가로지르는 코스에서 멀리 흥해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겐 족속이 유다 족속과 함께 살았고(삿1:16~17),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겐 족속이 피신케 한 곳이기도 하다(삼상 15:1~6).

남북왕국 시대에는 웃시아 왕의 농업정책 실시지역(대하 26:1~10)이었으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대하 34:1~7). 남북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아라드는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로, 면적은 93.14km², 인구는 23,400명(2009년 기준)이다.

네게브 사막과 유대 사막의 경계 지대에 위치하며 사해에서 서쪽으로 25km,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천식 환자에게 좋은 맑고 깨끗한 공기로 유명하다. 북동으로 광야 길을 한 15km쯤 올라가면 마사다 요새의 서쪽으로 올라가는 광장에 도착한다.

네게브 광야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아라드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1960년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 도시 아라드는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아름답다.

구약시대에 번성하였던 아라드

네게브 광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아라드 아라드는 광야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는 현대 도시에서 서쪽으로 4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575m가 되는 아라드 현대 도시는 고독한 광야의 도시이지만 도시 안에 들어 가보면 광야인 것을 느낄 수 없도록 잘 가꾸어 놓았다.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를 거쳐 오는 타바 코스로 오는 경우, 십중팔구는 아라드에서 숙박한다. 보통 타바에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 북상하면 아라드까지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아라드에 숙박하는 이유는 첫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스라엘 순례를 3박 4일이나 4박 5일 잡아온 팀은 대다수 이곳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비용 문제 때문인데 흥해나 사해 지역은 숙박료가 높기 때문에 여행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아라드에서의 숙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집트 시내산은 보통 새벽 1시쯤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내려와 타바를 거쳐 이스라엘에 입국하면 흥해에서 쉬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정이 촉박하면 사해까지 올라와 사해에서 온천욕과 더불어 쉬는 가져도 좋다.

그러나 여행비가 저렴한 경우, 여행사에서는 비용에 맞춰 숙박지를 정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현지 여행사로서도 사람들을 흥해나 사해로 안내하기 힘들다. 한국에서부터 여행비를 제대로 지불하고 오면 좋지만,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 손님들에게 요금을 제대로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순례객들은 일단 가격이 저렴한 여행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불편함은 순례객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호텔 수준도 모르기에 그저 감 사람밖에 없겠지만 시내산의 피로가 계속 따라다니는 줄은 잘 모른다. 아라드에서 자고 나오는 순례객들은 아라드에서는 단순히 숙박만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아라드 주변이나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광야의 현장을 둘러볼 시간이 없다.

미국에서 오는 경우는 일정도 넉넉하고 가격도 좋아서 흥해나 사해에서 숙박한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라드에서도 숙박한다.

어쨌든 아라드는 광야를 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니 아라드도 숙박하게 된다면 저녁 식사 후 호텔에 비치된 담요한 장을 들고 광야로 나가 보라. 별빛이 쏟아지는 광야에서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6년 여름에 필자는 서울 동은교회 담임 목사 및 성도들과 함께 아라드 광야에서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도 은혜를 받고 힘써 주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었다. 오늘 밤에도 혹시 아라드에 숙박하게 되었다면 광야로 꼭 나가 보기 바란다. 혹시 시간이 맞게 되면 서쪽으로 지는 일몰의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도 있고 이른 아침에는 사해 쪽에서 떠오르는 아름다운 일출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아침에 마사다 뒤편으로 돌아가 버스에서 내려 마사다(Masada)를 등산하는 것도 좋다. 시내산의 피로가 확 풀릴 것이다. 시내산을 다녀온 사람들은 마사다

이 경사로를 통해 오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경사로는 AD 70~73년 사이에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를 정복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언덕이기 때문이다. 걷다보면 그때 쌓기 위해 사용했던 나무들이 흙 속에 묻혀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

아라드 주변에는 현대 도시 디모나(Dimona)가 있고, 좀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Beersheba)가 서남쪽으로 있으며, 남쪽으로는 미쯔베 라몬(mitzvah Ramon)이라는 광야 도시가 있다.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의 무덤이 있는 키부츠(kibbutz) 이스라엘 집단 농장도 이 주변에 있다.

고대 도시의 흔적으로는 멀리 남쪽부터 가데스 바네아(Kadesh Barnea), 마크데시 라몬, 아브다트(Avdad, AD1세기 나바티안 제국 시대 사용했던 도시로 AD4~6세기 교회의 유적이 있다)가 있고, 아브다트 주변에는 에인 아브다트 있다. 에인 아브다트는 마치 그랜드캐니언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계곡으로 계곡 사이에 물이 흐른다. 아브다트에서 북쪽으로는 맘쉬트라라는 고대유적이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 국경 가까이에는 쉬브타라는 고대 도시 유적도 있다.

2004년 유월절쯤에 몇 명의 한국인들과 이집트 국경 쪽 광야를 탐사한 경험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주장하는 시내산이라는 곳과 모세와 아말렉이 싸웠다는 곳을 다녀왔다. 힘든 길이었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더듬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아라드를 중심으로 한 고대도시의 탐사와 광야 체험 등은 성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순례객들이 광야 길을 한 시간쯤 걸어보면

떻게 일어났을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떻게 생겨 활동하다 어떻게 사라졌을까? 40년간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던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야 되는 곳이 아라드이며 주변지역인 것이다.

지금도 광야는 여전하다. 출애굽 당시 3,500년 전이나 별반 생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절을 이해할 수 없도록 생활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성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라드와 주변지역을 둘러보면 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광야(Wilderness)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를 다시 생각해 본다.

히브리어 '바'는 무엇, 무엇 안에서 라는 뜻이고, '미'는 어디서부터 뜻이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다. 결국 광야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니 오직 광야 밖에 없는데 어디서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왔다는 말인가? 오직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왔을 것이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201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BPPE 인가, ABHE 정회원 인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박문용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원(ABE),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시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점진,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u.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한수희 칼럼(14)-자기 이해의 힘<2>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방법은?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그 어느 때 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요즘이다. 취직을 위해 이력서와 더불어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는 노력들이 가히 눈물겹다. 한정된 지면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내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겠는가?

소기의 목적을 위해 나의 매력을 어필하는 작업도 어렵기 짝이 없는 데, 하물며 있는 그대로의 '나'란 존재를 설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욱 난감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실로 치명적이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방법은 무엇일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만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현대의 추세에 따라, 뇌 사진을 보여주거나 DNA 분석결과를 알려주면 그것이 나를 온전히 설명하는 것일까? 나의 직업이나 나이, 생활 환경 등을 설명하면 그것이 나인 것일까? 그도 아니면, 내

가 가진 세계관과 삶의 철학을 설명하면 비로소 나에 대한 설명이 완성되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자신을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경험을 해 보길 권한다.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연구하고 해석하는 작업들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들에만 편향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 하물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빈약한 정보에 놀라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족히 책 한 권 분량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사의 경험적 단편이 될 수는 있어도 자신에 대한 다각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개인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해석되었을 가능성마저 놓후한다.

이제 적성 검사나 여러 심리 검사 도구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를 생각해 보자.

자신에 대한 지적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며 귀한 내적 자원임엔 분명하다. 또한 그 판단을 토대로 타인과 관계의 질을 높여가는 방편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풍성한 정보가 나에 대한 '이해'에 직결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보와 해석은 자기 '이해'와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자기 이해는 개인의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적 판단을 포함하되, 그것을 초월하는 인

간적인 가치가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넘어선 직관적이며 영적인 영역을 더불어 갖는다. 자기 이해란 자신과 소통하는 작업이며 과정이다. 그래서 자기 이해의 과정이 단순할 것 같으나 더 없이 심오하듯이, 자신과의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인간의 일생은 저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한 연극과 같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연극 속의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무대 위의 '나'와 무대 밖의 '실제 인간', 즉 겉으로 드러난 나와 그 이면의 나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역할을 맡은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그 속에서 때론 긴장하며 때론 자책하고 때론 숨어버린다.

자신에 대한 정보의 나열이 자기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정보 자체가 자신을 들여다 볼 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이해가 자기와의 소통이라고 말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존재하는 여

러 모습의 자기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의 나는 거짓이며, 무대 밖의 나만이 진짜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분리될 수 없다. 총체적인 모든 모습이 결국 다 '나'이다.

나와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통찰이며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다. 일기를 쓰면서도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던 우리지만, 가식을 벗은 정직함으로 나아가 때, 무대 밖의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 실제의 나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공개할 용의가 있을 때 드러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화장이 짙어지고, 민낯이 두려워지며, 적나라한 햇볕 아래보다는 적당한 조명 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화장을 깨끗이 지워내야 하는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온전하진 않지만 진실되길 원하는 심정으로 내 안의 민낯을 빛 아래 비추볼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장렬 칼럼

삭개오의 복음(3)



이장렬 교수
미드웨스턴침신대학원 신약학

그렇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나 결코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지 예루살렘이 아닌, 길목에 위치한 한 소외된 영혼, 종교-사회적으로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서곡이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삭개오가 올라간 뿔나무 밑으로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신다. 그의 친구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때나 지금이나 죄인마저도 기쁨의 사람으로 변모시킨다(눅19:1-6 참조).

삭개오와 친구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의 집으로 들어 가신다. 사람들은 실재 없이 수군거린다. 탐비 예수가, 갈릴리의 그 선지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세리장 삭개오를 향한 조롱의 활시위는 이제 예수님을 겨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나누어지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분은 삭개오를 위해 그리고 삭개오와 동급 죄인인 우리를 위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다. 대속의 복된 그림자가 예루살렘 임성 직전에 위치한 삭개오 이야기에 이렇게 짙게 드리워 있다(눅 19:7 참조). 그러나 삭

개오 이야기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고백을 담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앞선 1~7절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두 차례 반복되어 등장한다. 바로 '주(Lord)'라는 단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눅19:8).

먼저는 누가의 내레이션(narration) 가운데, 그리고 곧 이어 삭개오의 고백 가운데 '주'라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한다. 삭개오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지니(Genie)가 아니다. 삭개오의 죄책감을 '신비롭게' 덜어준 후, 그 후에는 이 세리가 전에 살던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세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 전에는 맘몬이 이 세리장의 주인이었다. 옆집이 경험하는 생존의 위협과 이웃집이 직면한 경제적 몰락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토색하고 마구 거두들였다. 그렇게 맘몬을 '헌신적으로' 예배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종교-사회적으로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 회복 가능성이 유실된 것 같은 그 인생, 그러니까 사는 것 같지 않게 생존하고 있는 스스로의 인생에 얼마 간의 위로를 제공하고자 애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다(눅

16:13). 본래 정결함 또는 의로움의 뜻을 지닌 '삭개오'란 이름은 더는 수치와 죄악의 상징이 아니다. 이제 삭개오는 회개, 변화, 그리고 제자도의 상징이다.

이웃을 토색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담보한 것이 이 세리의 이전 삶이었다면, 이제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웃에게 피해 준 것은 넉넉히 보상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값싼 은혜를 무기 삼아 '죄인'임을 입으로는 인정하나 자신이 이웃에게 끼친 폐에 대해 책임지려는 행동이 거의 부재한 우리 가운데, 영화 <밀양>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아직 마땅한 실천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듯 보이는 우리 가운데, 자기 죄의 심각성을 가까이 인정하고 그 결과로 이웃이 겪어

야 했던 고통에 대해 정중히 보상하려는 이 세리의 책임 있는 행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다른 단어처럼 '주(Lord)'라는 단어 역시 공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눅6:46)"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고백은 전혀 공허하지 않다. 그의 고백은 참된 삶의 변혁(transformation)을 수반한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이다(눅19:8).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

추가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고 선언할 때, 누가가 미래시제 동사 대신, 현재시제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가의 현재시제 사용은 생생한 묘사와 강조를 위한 것이며 아울러 삭개오의 고백이 가진 진정성을 강력히 암시해 준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Lord)'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그 단어의 뜻이 퇴색해 버렸다. '주 예수님!'이란 호칭을 계속 쓰다 보

니, 마치 '주'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름(first name)정도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한가. 하지만 삭개오가 사용했던 그 단어 '주'는 심각할 정도로 무게 있는 단어, 무엇보다 진정한 삶의 변혁을 암시하는, 강력한 단어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분 안에서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개인과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어떤 인간, 어떤 신화화된 존재, 어떤 우상도 더는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은혜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운 방문 가운데 십자가의 복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결코 정적(static)인 은혜가 아니다. 주님의 은혜는 역동적(dynamic) 은혜다. 종교-사회적으로 죽은 듯이 살아가는 삭개오마저도 소생시키는 생명의 은혜다. 너무나 심하게 망가져 재할복구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세리의 삶마저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갱생의 은혜다. 이웃들이 완전히 포기해 버린 이의 인생마저 예수의 참 제자로 변화시키는 새 창조 의 은혜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가 맞는가(딤후2:14).

그렇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나 결코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참 재미없는 세상

신동필 | 홍성사 | 128쪽

영혼의 결핍을 겪는 이들과 함께 우는 책. 이 책은 저자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때의 기록으로, 사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에서 발견한 작은 기적들을 담고 있다. 터져 나오는 눈물이 상한 마음을 씻겨 주는 것처럼, 그의 사진에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55장의 사진과 마음을 울리는 짧은 글들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데이비드 구딩 | 전도출판사 | 4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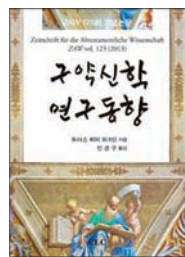
다락방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훈들을 많이 베풀어주셨다. 주 예수님은 교사이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학생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학교였다.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 배워야 한다. 또 지상에서 사셨다가 지금은 하늘에 계신 그분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구약신학 연구동향

김구원 | CLC | 2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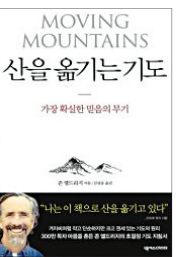
독일에서 1881년에 창간돼 2013년에 125회 창간기념으로 발행된, 세계적인 구약학 전문 학술 저널인 <구약 학술 저널>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ZAW]) 에 실린 논문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제외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오경, 역사서, 지혜서, 이스라엘 종교사, 사해사본 등 구약학의 핵심 부분에 대한 과거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산을 옮기는 기도

존 엘드리지 | 넥서스CROSS | 272쪽

이 책은 300만 독자의 마음을 흔든 존 엘드리지의 초절정 기도 지침서다.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등 기도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지침을 활어 같은 언어와 체험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중보 기도, 치유 기도, 대적 기도, 성구 기도 등 기도의 모든 유형을 다루고 있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터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교인을 닭으로 여기는 양계장 교회”

왜 떠나야 하는지 예수께 묻다

전작 <닭장 교회로부터 도망가라>를 통해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 운동론을 정리한 저자는 <나사렛 선언>에서 의도적 작은 교회 운동의 성경적 근거를 밝혔다.

<나사렛 선언>은 안식일 날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61장 1~2절을 읽으신 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하신 누가복음 4장 16~30절 사건에 그 배경을 둔다.

이 선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하나님나라 선포”와 “회개의 촉구” 메시지에 비견되는 예수님의 자기 신원과 사명선언이다.

예수님은 왜 나사렛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했는가? 저자는 이 질문

을 시작으로 성경과 고고학, 문헌학적 연구를 통해 나사렛의 의미를 ‘가지’로 확정하고 있다.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일반적 의미가 가지가 아닌,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다시 돌아나는 가지, 새싹이다. 밀동이 잘려 나가도 생장점이 살아 있으면 다시 가지가 나듯 한국 교회에 새로운 싹, 가지가 돌면 희망이 있다.

저자는 대형화와 성공지상주의를 추구하다가 망해 가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며, 이 위기를 타개할 근원적 지혜를 나사렛 선언에서 건져 올리하고자 한다.

왜 지금 나사렛일까? 예수 당시 나사렛은 로마의 변두리인 팔레스



나사렛 선언 정용성 홍성사 | 200쪽

타인, 팔레스타인에서도 갈릴리, 갈릴리에서도 주변부 마을이었다. 나사렛과 같은 시골 마을 농민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토지를 내놓

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날뽀팔이가 되었다가 그럴게라도 먹고 살 수 없을 때는 광야의 도적떼가 되었다. 착취와 가난, 절망의 땅에서 예수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셨고 그 희망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다시 땅끝으로 그 희망을 전한다.

<나사렛 선언>은 이 시대의 예루살렘 중심성, 로마 중심성을 해체하고 하나님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울려보내고자 하고 있다.

이 책의 1장 ‘나사렛은 어떤 마을인가’는 나사렛의 고학적, 문헌학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2장 ‘나사렛의 의미는 무엇인가’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

루려 함이리라”는 마태복음 2장 23절을 주해하면서 동치가 찍힌 그루터기에서 새 ‘가지’(나사렛), 희망이 시작됨을 설교한다. 3장 ‘성경에 나타난 나사렛 사상’은 구약, 유대교, 신약, 특히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타난 나사렛 사상을 탐구한다. 4장 ‘예수의 나사렛 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5장 ‘왜 예수는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했는가’는 ‘주변부 반란’이라는 사회적 이론으로 예수님의 나사렛 사역을 설명한다. 6장 ‘예수 이후의 나사렛’은 복음 전도의 근거지가 된 나사렛의 지리적 역할, 초기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은 사회적 역할을 정리했다. 이영인 기자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인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제자훈련의 약점 보완하는 '영적 멘토링'

교회, 영혼, 무엇이 중요한가?

《영적 멘토링(Mentoring for Spiritual Growth)》은 영적 지도에 관한 책이다. 현대의 상담에 관한 사상을 다룬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 행해온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히 영적 멘토링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 두 사람의 영적 관계 속에 이뤄지는 영적 상담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다.



영적 멘토링
토니 호스폴
CLC | 200쪽

음, 하나님 체험이나 경험, 느낌,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고난 등으로 보여진다.

저자가 영적 멘토가 취해야 할 태도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답을 제시하거나 가르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다. 영적 멘토는 그의 삶에 친구가 되어주고, 멘티가 스스로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삶을 선택하도록 기다려 주고 격려해 주는 동반자의 역할이다.

때로는 멘토로서 리더하거나 조언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겠지만, 멘토의 궁극적 역할은 멘티가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다. 즉 멘티가 멘토의 추종자가 돼선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도우는 역할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 멘토링'이 제자훈련과 차별화되는 핵심이다.

◆ 자율적 신앙

저자는 '영적 멘토링' 사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 지쳐 있었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영성은 자발성에 의해 성장한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행하거나,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영성 형성이 어렵다. 영성이란 영적 소통 능력이다. 소통이란 쌍방 교류를 의미하며, 상호 교류는 개별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성 형성을 돕기 위해 자율성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스트모던'은 영적 퇴보나 결핍이 아니다. 개별 영혼을 돌보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모던'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처방'이다.

아직 한국교회는 '영적 멘토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사역에 지친 사역자들을 회복시키고 사역을 건강하게 지속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적 멘토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영적 멘토링'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탈진과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 저자 토니 호스폴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열정이 있는 영성 훈련가이다.

강도현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동성애와 성해방 풍조, 21C 문화적 질병”

35명의 전문가 진단이 담긴 편집서 출간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김영한의
김담북스 | 1048쪽

김영한 박사(살롬나비 상담대표, 기독교학술원 원장)를 중심으로 35명의 각계 전문가들의 글이 실린 편집서 《동성애와 21세기 문화충돌》(김담북스)이 출간됐다.

이 책에서 김영한 박사는 “무신론과 더불어 동성애와 성해방 풍조는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문화적 질병”이라며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좌파 페미니즘이 산출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ie)로 인해 심각한 문화적 혼돈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 남성과 여성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페미니즘에서는 생물학적 성(sex)이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남성 중심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고 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유사 종교(eine Quasi-Religion)로서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일부일체제라는 결혼 제도에 대해, 게이적, 레즈비언적, 성전환적, 혼음적 형태가 '성적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명목을 가지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활 공동체로 왜곡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포스트모던 사상의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동성애 운

동은 소수자 인권운동이란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자리를 잡았다.

동성애 인권운동은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의 '성 정치'에서 연유한다”며 “성정치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는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에 프로이트의 성적 욕망 개념을 넣어 성 관념이나 도덕 윤리를 억압하는 기존의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개인의 성욕을 억누르는 사회적 제약을 해체하고, 성해방을 실천하는 '성 정치'(Sexuelle Politik) 이론”이라고 했다.

또 “해마다 6월이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Queer Festival)는 이러한 세기말적인 유사 종교 현상이 우리 사회에까지 퍼져 들어 온 것을 알리는 표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이 책은 성경신학, 교회사, 신학, 현상학, 사회과학, 선교학, 윤리, 생리학(의학), 상담학, 정신분석학, 법, 목회 등 9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35인이 쓴 글을 편집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애에 관하여 자기의 관점에서 각각 접근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을 주신 창조의 성 질서를 왜곡하는 죄'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와 '동성애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탈동성애 처방을 한결 같이 밝히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본 편집서는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동성애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동감한다. 또 탈동성애로 나오는 목회적 돌봄과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며 “혼란케 하는 왜곡된 지식들이 범람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필자들은 예언자와 같이 참다운 삶의 길과 지식의 길, 그리고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40면 / 11,000원

안나가? 가나안!

— 소강석 지음 —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연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존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신앙의 왜곡과 일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허려 교회를 안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대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긴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사탄의 지배
264면 / 10,000원



레위기
288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238면 / 11,000원



생명의 언어
317면 / 13,000원

금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금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g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745-1007(대)



(From left to right: Albert Wang, Bill Watanabe, Susie Gamez, and Steve Park) Panelists and speakers at the Asian American sessions of the CCDA National Conference shared personal experiences of learning about racial identity.

Asian Americans Convene and Share Racial Identity Experiences at CCDA

BY RACHAEL LEE

The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CCDA) National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August 31 to September 3 in Los Angeles, featured sessions specifically for Asian American attendees this year, which included an Asian American networking dinner on Thursday night, and a three-hour workshop with three sessions on Friday afternoon.

Much of the three-hour workshop sessions was centered around sharing stories from personal experiences in regards to navigating the Asian and American cultures, figuring out racial identity, and engaging in community development as an Asian American.

The first session, called 'Breaking Down Asian American Identity,' was led by Daniel Lee,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Asian American Theology and Ministr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ile the second session, called 'Addressing Racism,' was led by Steve Park, the executive director of Little Lights Urban

Ministry. The final session was a panel of speakers including Steve Park; Susie Gamez, who was formerly with World Impact; and Bill Watanabe, the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the Little Tokyo Service Center, and was moderated by Albert Wang, a member of CCDA's Leadership Cohort. While the speakers themselves shared stories of their own, the attendees also had time to share their own stories in discussion groups.

Attendees shared experiences of facing different cultural expectations at home and at school while growing up, and of the subtle cultural differences they experience at work, among others.

Steve Park, during his session, opened up about his experience of being encouraged by his family to "be as American as possible" from a young age, which eventually led him to even develop what he described as "anti-Asian" sentiments, such as being ashamed of other Asians or of Asian culture.

Daniel Lee said that those who have such "anti-Asian" feelings may also shy away from participating in specifically Asian

American events, and from being around only Asians. But Lee said having discussions about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is not about trying to push Asian Americans to become someone they're not. Hav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those experiences affect an individual allows for a more holistic understanding, he said, and that allows "the gospel to penetrate deep into every part of who you are." This is a crucial element to good leadership, Lee said.

Lee also emphasized that differences in how Asian Americans experienced their racial identity growing up are more diverse and prevalent than some expect, and said that it's important for Asian Americans to know "where your pain comes from."

"The goal for Asian Americans is to know beyond our own racial experiences," said Lee, noting these differences. "Because when you are the only Asian American hired in your workplace or represented in a community, your story can't be representative of everyone else's. Everyone's story is different."

Earth in Optimal Condition for Redemption of People, Says Apologist Hugh Ross

Ross shares latest research at apologetics seminar in Los Angeles

BY RACHAEL LEE

Hugh Ross, an apologist, author, and founder of 'Reasons to Believe,' shared some of his most recent findings regarding the earth's current conditions in an 'ice age cycle,' and how it points to an intelligent Creator, at an apologetics seminar that took place on Friday evening at a Christian school in Los Angeles.

Ross started out with the question, "What does it take for billions of humans to be redeemed?" He argued that the world is currently in an ice age cycle, and that this further points to an intelligent Creator who designed the specific time period and conditions to be able to carry out his plan for salvation and redemption.

Ross described an 'ice age cycle' as a period of time in which the earth is transitioning from having "a lot of ice, to not a lot of ice," and explained that the current conditions are optimal for having advanced human life on earth. For instance, he said that the sun is currently in the middle of its burning history, allowing it to "have the luminosity stability and the low flaring conditions" for humans to be able to live a stable and advanced life on earth.

"With the sun being as bright as it is, we should have no ice at all," said Ross, and added, "but we do have ice," due to a series of what Ross called "tectonic miracles" that allows ice to build up and be stored.

One of those "tectonic miracles" include the shift of Antarctica. After it broke off from Australia, Ross said, it attached to South America, from which it again broke off and drifted south, causing "a circulation of water around Antarc-

tica and [cooling] it to facilitate a buildup of ice."

Another such example Ross gave was the breaking off of the Indian subcontinent from Madagascar and its subsequent "crash" into the Asian continent. This, Ross said, "forced up the ground to form the Himalayas," a crash which is still ongoing and causing the Himalayas to get taller by 5 centimeters each year.

"And because the sun is as bright as it is, we have the stability we need to engage in larger forms of agriculture," he added.

Though the unstable climate of most of earth's history led people groups to engage in smaller scale agriculture, said Ross, the earth has seen stable temperatures over the past 9,000 years, allowing for a few humans to engage in larger-scale farming and for most others to have the freedom to not engage in agriculture at all and instead focus their energy on technology or thought.

"God allowed this so that people can hear and believe the good news of salvation," Ross said.

After the talk, Ross answered questions from the audience of mostly youth and young adults such as, "Are dinosaurs real?" "How can you scientifically prove miracles?" "What do you think about evolution?"

He encouraged the students to "never stop asking questions and pursuing your doubts."

"As it says in 1 Thessalonians 5:21," Ross said, "Test everything. Hold fast to what proves to be good."

Ross' two-hour apologetics seminar was attended by some 200, and took place at New Covenant Academy, a Christian K-12 school located in Los Angeles.

Interview with Sungwon Jahng: 'Preserving Unity in the Body'

BY RACHAEL LEE

For Pastor Sungwon Jahng, choosing to serve as the English ministry (EM) pastor of Los Angeles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wasn't necessarily a choice for a particular position or cultural context. It was out of a sense of ownership of the church, he says.

"I just felt a personal responsibility to care for this church, and by God's sovereignty, he opened up a position for me to be here," Jahng said. "I don't think I had that thought that I want to be at a Korean immigrant church specifically. I just thought, 'This is my church, these are my people.'"

Jahng, who has served at LA Open Door since 2006 but has been its EM lead pastor since 2013, has grown up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and some of his experiences in that context weren't so positive. Jahng has experienced the effects of church infighting, splits, and lawsuits. Yet, he says these experiences have not pushed him away from ministry or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ut planted in him a greater conviction for unity.

Jahng shared his personal thoughts and journey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in an interview.

Q: The experience of having gone through a church split must have been formative for you. In what way did that affect you and your outlook of the church?

A: That experience really

marked my heart, because it was painful. A lot of damage came out of that. Lifelong friends, brothers and sisters whom I grew up with in the church – all of a sudden we didn't see each other anymore.

After that experience though, one of the passages that became dear to my heart was Ephesians 4, where Paul says to be diligent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body. I think that'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 to find a way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body. Because we have so many things that are fighting against that, especially with the generation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because of those negative experiences I've had, I really have to fight for that unity within my own heart.

Q: What are some steps that have helped you to fight for unity?

A: I make an effort to first expect and know that – mindfulness is the first step I think, that there are going to be differences. And I think the next step is trying to distinguish clearly what is a matter of principle or preference. Sometimes those things get blurred together.

Q: Some say that one of the things that hinders unity between KM and EM is a difficult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 pastors of the two ministries. Have you faced any of those challenges?

A: I think one of the advantages of me having been here [at LA Open Door] for so long – for over 10 years now – is that I've

been able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my senior pastor. A trust has formed. And I think that's foundational – to know that we are on the same team. And over the years, I've gotten to know him, to know his personality, and I can say sincerely that I know his motives. He wants what's best not only for this church but f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His objective is to serve God. Having that kind of trust really helps me to see past the cultural differences there might be in leadership style, and to see him as a brother in Christ, a fellow under shepherd.

Another thing that helps is that he also is aware of the difference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The way he approaches his associate pastors is different from the way he approaches me. While he's still technically 'over' me, he's much more sensitive to those cultural differences with me.

Q: What are some ways that KM and EM at LA Open Door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build that unity? How would you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inistries?

A: I would describe our relationship right now like that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 As a child, we [the members of EM] are growing into adulthood. Our English ministry is kind of like a church plant – we're trying to build from bottom up right now, and we have such a great support from the KM. And being around these senior saints – there's a richness to that, beyond



Pastor Sungwon Jahng serves as the English ministry pastor at LA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just the cultural differences. When you really dig in, there is a depth that we can learn from the first generation, and it's challenging. Their passion, prayer, dedication, service, and generosity – these are all things that are counter to what we've grown up with in a Western society that tends to be individualistic or rationalistic. For us to be around that spirituality, that challenges us.

Q: What are the struggles that have challenged you most as a Korean American pastor?

A: I think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being a pastor in general is not shepherding other people, but shepherding yourself. That's the constant battle – personal sanctification. There's always a sense of inadequacy, and asking, 'Am I really up to this task to shepherd all of these people?' And that's by design – God wants

us to feel that inadequacy so that we can lean on him. That's essential to preach the gospel rightly – to preach out of weakness, not out of strength.

And I think another challenge is just working with people, when it comes down to it. At a missions preparation class I once took, something a speaker said was that the number one leading cause for missionary attrition is not because the work is so hard, not because people are resistant, but team members cannot get along. That's Satan's ploy – he wants to divide the church. And that's why Paul gives that exhortation to make every effort to preserve the body of Christ.

In some ways, you can make this cultural thing so complex, and in other ways, you can just make it so simple – it just comes down to loving one another, forgiving one another.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Research: Majority of Christians Against Church Endorsement of Political Candidates

Most Americans as well as Christians do not want to change the Johnson Amendment which states that churches must lose their tax-exempt status if they endorse any political candidates, according to a new survey by LifeWay Research published on September 8.

As many as 79 percent of Americans said that it was inappropriate for pastors to endorse any political candidate in church.

"Americans already argue about politics enough outside the church,"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They don't want pastors bringing those arguments into worship."

Responses varied slightly across denominational lines. Catholics (13 percent) were least likely to support endorsements, followed by Protestants

(20 percent), and evangelicals (25 percent). Only 16 percent of other Americans thought it was right for pastors to endorse political candidates.

A significant majority of Americans also do not want churches to campaign for political candidates. When asked whether they agree with the statement, "I believe it is appropriate for churches to use their resources to campaign for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an overwhelming 81 percent of the Americans were against the idea, and only 17 percent agreed with it.

Americans were more evenly divided on the question of letting churches lose their tax exempt status if they choose to endorse political candidates.

About 52 percent said that churches must not lose tax exemption for publicly taking political sides, while another 42 percent did not think so.

Men (47 percent) were more likely to agree that churches must lose their tax-exempt status than women (38 percent). More African Americans (64 percent) and Hispanics (57 percent) were opposed to this proposition than Whites (50 percent).

The conclusion of the survey was that Americans in general do not favor political endorsements by churches, but many believe that it is not a punishable offense.

"Endorsements from the pulpit are unpopular and most Americans say they are inappropriate," McConnell said. "But they don't want churches to be punished for something a pastor said."

The survey was carried out last year between September 14 and 28, via telephone interviews of about 1,000 Americans.

New York Court Rules in Favor of Non-Biological, Non-Adoptive Parents

BY CHRISTINE KIM

The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ruled on Tuesday that non-biological and non-adoptive parents are allowed to ask for custody and visitation rights, broadening the definition of what it means to be a parent.

In its ruling, the appeals court overturned the 1991 ruling in *Alison D. v. Virginia M.* that defined a parent as biological or adoptive.

Tuesday's ruling came out of two custody disputes from two same-sex couples in New York.

One case involved two women who had a child together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After the relationship ended, the biological mother tried to cut off her former partner's contact with their son. The nonbiological parent sued but was denied custody and visitation privileges by a lower court based on the precedent established in 1991.

In the second case, involving an unmarried same-sex couple who had a child before their relationship ended, the biological mother sought child support from her former partner but attempted to keep her partner from



The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ruled that non-biological, non-adoptive parents are allowed to ask for visitation and custody rights. (Photo: Albany NY/ Wikimedia / CC)

being able to see her child.

In both cases, the nonbiological parent had no legal rights under the 1991 precedent.

Tuesday's decision, written by Judge Shielo Abdus-Salaam, wrote that "the definition of 'parent' established by this court 25 years ago in *Alison D.* has become unworkable when applied to increasingly varied familial relationships."

New York allowed gay marriage in 2011, follow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4 that legalized same-

sex marriage across the country.

Opponents expressed wariness over the possibility of abusive partners alleging ties to the child for the purposes of bringing the biological parent to court.

As long as "a partner shows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parties agreed to conceive a child and to raise the child together," the nonbiological, nonadoptive parent has the legal standing to request visitation and custody rights under the new ruling.

Massachusetts Gender Identity Law May Be Enforced on Churches Used for 'Secular Purposes'

BY RACHAEL LEE

A new law set to take effect on October 1 in the state of Massachusetts prohibits discrimination of transgender individuals in all public accommodations, which "could" include churches, according to a guidance issued earlier this month.

According to a 'Gender Identity Guidance' released by the Massachusetts Commission Against Discrimination: "Even a church could be seen as a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if it holds a secular event, such as a spaghetti supper, that is open to the general public."

"All persons, regardless of gender identity, shall have the right to the full and equal accommodations, advan-

tages, facilities and privileges of any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the guidance further states.

The Gender Identity Guidance was regarding the Massachusetts bill S.2407, also called, "An Act relative to transgender anti-discrimination." The bill seeks to amend existing state laws that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sex to also include prohibitions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dentity.

However, a footnote in the guidance specifies: "All charges, including those involving religious institutions or religious exemptions, are reviewed on a case-by-case basis."

In comments to *The Christian Post* on Wednesday, the MCAD also said that churches are "by and large" ex-

empt from this law, but this may still apply for "instances where a place of worship is used for purely secular purposes that are open to the general public that may be seen as a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The guidance specifies that gender identity "refers to a person's internal sense of their own gender and its expression," and does not require any surgery or intent to have surgery. An individual may prove that he or she identifies as a different gender than that of birth sex by "any evidence that the gender identity is sincerely held as a part of the person's core identity," the guidance states.

Violation of the law could be punishable with up to one year in jail and \$2,500 in fines.

Nigeria: Open Doors UK Gives Trauma Care to Victims of Terrorist Attacks

Persecution charity Open Doors has opened a first-of-its-kind trauma center in Nigeria to support the victims of terrorist attacks across the country.

The charity stated on its website that the trauma center will "accommodate up to 30 trauma victims at one time, and will have a training annexe to help equip church leaders whose congregations have suffered terrible atrocities. It will be staffed by qualified people, skilled in dealing with post-traumatic stress and all of its associated conditions."

The families will stay at the center for about six weeks to receive healing and comfort before returning to their homes.

The church leaders will also be trained to provide post-traumatic stress healing to those who have suffered persecution.

Open Doors UK and Ireland president Eddie Lyle visited Nigeria and met with the parents of the abducted

Chibok girls, and witnessed their agony.

"Meeting four of the fathers of the Chibok girls encapsulated for me the agony of this tragic incident," Lyle recounted. "Jonah, one of the fathers, asked me how he can stop his wife from screaming at night because of the sense of loss. She's missing her daughter and doesn't know how to live life again. 'What would Jesus do, Brother Eddie?' he asked."

"There are no easy answers to that most searching question, beyond the fact that God grieves with his suffering family," said Lyle.

The charity is keeping in touch with the parents of around 200 girls who were abducted by Boko Haram in April of 2014.

Many of the fathers whom the Open Doors team spoke with were concerned about their wives and children. They visited hospitals frequently but the hospital does not have trauma care

to support them.

Some of the parents told Open Doors that they knew Christians who had gone back to rely on witchcraft to bring their daughters back, but others remained firm in faith, and many others started attending church when they had not done so in a long time.

"The fathers we spent time with said they do not see the persecution they are facing as something extraordinary, but as a natural part of being a Christian and walking in the footsteps of Jesus. They expressed hope that they will yet see the faces of their daughters in this life -- and if not in this life, then in heaven. They also expressed trust that the Lord will use their suffering for their good," Open Doors stated.

Between 2006 and 2014, up to 11,500 Christians were killed, 13,000 churches destroyed, and over 1 million people persecuted among whom many were forced to flee from their homes, according to Open Doors UK.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org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0%이자가능

가을맞이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SONATA Limited Technology Packag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00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